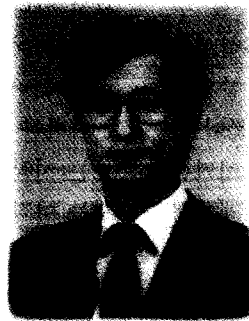




# 신과학 연구(1)

새 천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첨단 공학등의 분야 이외에,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과학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기고에서는 최근 신과학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신과학 관련 연구 분야들을 알아본 다음,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수 있는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서 알아보겠다.



박민웅 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컴퓨터 공학부

특히 60년대에는 기존의 서구 중심의 체제나 질서에 반항하는 젊은이들의 새시대운동(New Age Movement)이, 70년대에는 서구과학 패러다임에 비판하는 연구들이, 80년대부터는 평화운동, 녹색운동, 인권운동등 각종 사회 운동이 세기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지구 자체의 끊임없는 기상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예기치 못

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도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반세기전부터는 기존 과학 체계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태동된 분야가 신과학 (New Science)이다.

신과학의 출발점은 1975년에 프리초프 카프라 (Prichof capra)가 지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The Tao of Physics)이라는 저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서 저자는 핵물리학에 심취되어 연구를 깊게 들어갈수록 20초부터 풀리지 않던 원자의 입자설과 파동설 문제에 대두되게 되었으며, 결국 이에 관한 돌파구를 하이젠버그와 마찬가지로 동양 사상에서 찾게된 것이다(1).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 기존의 과학을 바라보자는 운동은, 곧 여러 기존 과학의 풀리지 않는 문제

## ◆ 연재 계획

- 제1회 .....서론 (신과학 소개)
- 제2,3,4회 .....free energy 연구동향
- 제5회 .....정신과학 연구동향
- 제6회 .....대체의학 연구동향

## 1. 서론

지난 한 세기는 과거의 어떠한 과학 발전보다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결과들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그 발전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들을 가지고 있던 과학자들로 확산되었으며, 결국은 물리학의 양자론, 홀로그램이론, 수학의 카오스 이론, 생물학의 형태장론, 심리학의 초심리학, 대기화학의 가이아이론등 과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까지도 연결시켜서 이들에 관한 난제들까지 해결하고자 하고있다.

이러한 신과학 운동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서구과학의 출발점부터 찾을 수 있다.

뉴턴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존 과학은 지난 300여년간 지금의 과학체계를 이끌어 오기에 충분하였으나, 그 자신도 분명히 밝힌바와 같이, 이에에는 과학적으로 재현, 반복이 되지 않는 어떤 특수한 상황은 배제하고 진행 시켜온 것이 된다. 즉, 그는 모든 과학의 근간을 기계론적 물질론에 두었고 데카르트의 경우는 심신 이원론의 주장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여러 이해를 지금의 과학과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 물리학에서 풀리지 않는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비롯하여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중에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현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포괄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앞선 사고를 가진 학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과학 운동은 뉴턴, 데카르트 등이 생각하는 모든 사물에 관한 기계론적 사고와는 달리, 모든 현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심지어는 정신적인 면까지 고려한 일원론적인 사고까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에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고는 그냥 관념론 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초자연 현상이나 풀기 어려운 과학적인 난제로 돌려 버리기에 너무나도 뚜렷이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 간헐적인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결국 앞선 과학자들은 이들에 관한 원인이나 그 메카니즘을 찾으려 하는데서 신과학 연구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수십년간 신과학 관련연구를 수행해

온 원로교수 중 한사람이 일본의 세키 히데오(현재 95세) 박사이다. 그는 신과학 관련연구 분야중 특히 정신 과학과 관련 있는 연구분야를 <표I>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대부분 초자연 현상이 이 표에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10^{20}$ Hz이상의 주파수를 초월하는 영역에서 표와 같은 물리적,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며, 그 중계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체를 중심으로 한 심리적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하여 아직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규명 되어 있지 않지만 세키교수는 나름대로의 중력파이론등을 이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신과학 연구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발간된 「신과학은 없다」에서는 아직껏 무엇하나 시원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신과학 관련 연구들은 일부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랄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신과학 분야의 특성으로 볼 때에 여태까지의 과학만으로 신과학분야를 측정,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서구 과학은 필히 재현·반복이 되어야 하는 기계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였고, 그러한 면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초상현상은 도저히 현재의 과학적 범주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과학사를 돌이켜 보면 새로운 학설이 발표되는 초창기에는 많은 비난과 냉대를 받았았기 때문에 소개하려는 신과학분야도 아직까지 재현성의 결여, 이론적 근거의 모호함 등으로 당분간은 그 진위 및 신뢰성을 자신있게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임은 분명하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최근에는 명확한 과학적인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현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그와 관련된 연구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회에는 이와 같은 실제 연구 현황을 예를 들면서 알아보기로 한다.

〈표 1〉 초심리(ψ)현상의 분류표

	11 진동현상 vibration	111 툽툽두드림현상(raps), 음성 112 冷, 溫, 열, 발화 121 오로라, 카를리안사진
(1) 물리적 Physical	12 방사현상 radiation	122 영사진(scotograph) 123 떠 다니는 빛(ball lightning) 124 반객관적인 유령(semi-objective ghost)
	13 동력현상 power	131 공중부양(levitation), 다우징 132 EMA motor, psychotronic generator 141 천지창조
	14 물질화 materialization	142 객관적 유령(ectoplasm), 밀랍장갑(wax) 143 공간이동 144 금분생성 (golden dust falling)
	21 물질변화 transmutation	211 생명의 탄생 212 진화(evolution) 213 생물학적 원소변환(BTA)
(2) 생물적 Biological	22 체중변화 weight change	221 신내림에 의한 체중감소 222 삶에서 죽음으로 이행시 체중감소 231 수양, 윤리실천에 의한 건강유지 232 병의에 의한 발병 233 불에서 건담 241 전생체험 (age regression) 242 명이나 기형과 같은 증거의 흔적 243 유체이탈 311 하늘로 부터의 계시 (revelation) 312 방언(autosuggestion)
	23 생명력 변화 vitality change	313 자동기술, 병의 314 주관적 유령 315 바이오 피드백
	24 윤회 metempsychosis	321 정신감응 (telepathy) 322 예지(precognition) 323 투시, 천리안 (clairvoyance) 324 역행인지(retrocognition)
	31 초심리정보 psi information	331 energy 3311 무생물 (PK-MT;PK-ST) 3312 생 물 (PK-LT;healing) 332 information 3321 무생물 (염사; 염묘) 3322 생 물 (임사;Backster효과)
(3) 심리적 Psychological	32 ESP	
	33 PK	

(1) 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 Shambhala Pub, 1975

(2) Mignon Park, Current State of Research to Life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ISLIS, vol 16-1, Mar, 1998

(3) 방건웅, 신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정신세계사, 1997

(4) 이성범, 과학기술과 정신세계, 범양사, 1988

(5) 신과학연구회편, 신과학 운동, 범양사, 1986

(6) H. Seki, 생명과우주(일본어), 飛鳥新社, 1981

(7) S. Denge, 초능력과 거의 수 수계기에 도전한다, 전파과학사(임승원역), 1994

(8) 강건일, 신과학은 없다, 지성사, 5월, 1998

〈저 자 소 개〉

朴 玟 用

■ 1950년 9월 6일생. 1973년 2월 연세대학교 전자과 졸업.

■ 1977년 2월 동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 (석사).

■ 1982년 3월 일본 동경대학 전자공학과졸업 (박사).

■ 1977년~1982년 3월 동경대학 의용전자 연구시설 연구원.

■ 1982년3월~8월 MIT. UC Berkeley 연구원.

■ 1982년 8월~현재 연세대 전기·컴퓨터 공학과교수, 대한 전자공학회 학술이사

〈참 고 자 료〉